

##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과 또래놀이행동 간 관계에서 행동문제의 매개적 역할: 성차를 중심으로\*

Relationships between Preschoolers' Negative Emotionality and Peer Play Behaviors by  
the Mediation of Behavioral Problems: Focusing on Gender Differences

성미영<sup>1</sup>

Miyoung Sung

### ABSTRACT

**Objectiv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effects of preschoolers' negative emotionality on their peer play behaviors, focusing on the mediation of behavioral problems.

**Methods:** The study sample included 287 preschoolers aged 3 to 5 attending child care centers located in Seoul, Korea. The instruments used in this study were the Child Behavior Questionnaires (CBQ), Child Behavior Checklist (CBCL), and Penn Interactive Peer Play Scale (PIPPS).

**Results:**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boys and girls' negative emotionality exerted positive effects on their behavioral problems. Second, boys and girls' negative emotionality had a positive influence on their play interaction, play disruption, and play disconnection. Further, the effect of boys' negative emotionality on their play disruption and play disconnection was totally mediated by their behavioral problems, and girls' negative emotionality on their play interaction and play disconnection was totally mediated by their behavioral problems.

**Conclusion/Implications:** These findings provide preliminary evidence that the relationships between preschoolers' negative emotionality and peer play behaviors may be mediated by their behavioral problems.

**key words** negative emotionality, peer play behaviors, behavioral problems

\* 본 논문은 2016년도 동덕여자대학교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수행된 것임.

<sup>1</sup> 제1저자(교신저자)

동덕여자대학교 아동학과 부교수  
(e-mail : minie72@dongduk.ac.kr)

## I. 서론

인간의 정서적, 행동적 문제는 생애 초기부터 시작되는데, 유아기의 행동문제는 유아 자신의 개인 내적 요인과 환경과 같은 외적 요인에 의해 직접적,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특히, 개인 내적 요인의 대표적인 예는 기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기질의 하위요인 중 최근 강조되고 있는 요인이 바로 부정적 정서성이다. 부정적 정서성이란 슬픔, 분노, 놀람 등의 부정적 정서

를 많이 드러내는 정도로 정의된다(Rothbart & Bates, 2006). 행동문제의 영향 요인으로서 부정적 정서성에 대한 관심은 여러 선행연구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은 다양한 사회적 부적응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데, 특히 행동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선희, 2016; Eisenberg et al., 2005; Rubin, Bukowski, & Paker, 2001; Rubin, Coplan, Fax, & Calkins, 1995; Spinrad et al., 2004; Troxel, Trentacosta, Forbes, & Campbell, 2013). 예를 들어,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이 내면화 행동문제에 미치는 중단적 영향을 살펴본 연구에 의하면(김선희, 2016), 시간의 경과에 따라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 변화가 더 크게 나타날수록 4세 유아의 내면화 행동문제 수준이 높아졌고, 내면화 행동문제 또는 내면화 및 외현화 행동문제 모두에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이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도 제시되었다(박새롬, 노보람, 박혜준, 이순형, 2015; 성미영, 권기남, 2010).

또한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은 공격성이나 죄의식 등과 정적인 관련을 보이고, 부정적 정서를 자주 경험하는 아동은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해 더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경향을 보였다(Rothbart, Ahadi, & Hershey, 1994). 유아를 대상으로 긍정적 정서성과 공격적 행동의 관련성을 살펴본 연구에 따르면(Arsenio, Cooperman, & Lover, 2000), 유아의 긍정적 정서성 수준이 높을수록 공격적 행동의 발생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부정적 정서성이 높을수록 공격성 수준이 높다는 결과와 유사한 맥락이다. 이외에도 시설보호 아동과 일반아동을 대상으로 정서성과 행동문제의 관련성을 살펴본 연구결과(성미영, 2006)에 따르면, 아동의 정서성과 행동문제는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일반아동뿐만 아니라 시설보호 아동의 경우에도 부정적 정서성 수준이 높을수록 이들의 내면화 및 외현화 행동문제 점수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과 행동문제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기초로 해 볼 때,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이 행동문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이 행동문제를 예측하는 요인이라는 선행연구결과와 더불어, 부정적 정서성의 경험이 일상적 또래관계의 질적 수준을 저하시킨다는 결과도 제시되었다(권연희, 2012; Fabes et al., 1999). 이는 부정적 정서성과 또래관계와의 관련성을 보여주는 결과인데, 최근 연구에서는 영아기 부정적 정서성이 3세 유아의 또래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였고(최인숙, 2015), 유아의 또래상호작용과 기질의 관련성을 살펴본 연구들(황윤세, 2007; Russel, Hart, Robinson, & Olson, 2003)도 실시되었다. 초등학교 입학 이전의 시기에 유아가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거나 또래를 방해하는 등의 행동문제를 보일 경우, 이후 학교생활적응이나 또래관계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결과(김수정, 광금주, 2010)는 유아기 또래관계에서 나타나는 행동문제가 이후 사회적응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함을 보여준다.

유아의 또래관계는 또래와의 놀이상황을 통해 주로 형성되고 유지되므로 유아의 또래 간 상호작용을 가장 잘 관찰할 수 있는 맥락은 놀이 상황이다(권연희, 2012). 유아는 또래와 놀이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놀이에 개입하기 위해 긍정적인 놀이상호작용을 이어가기도 하고, 이와 달리 놀이상대방인 또래의 놀이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자신의 의지대로 놀이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기도 한다(Rubin, Bukowski, & Paker, 2001). 이처럼 유아에게 있어서 놀이는 또래와의 관계 형성과 유지에 있어서 중요한 경험의 장이다. 놀이발달 단계, 놀잇감

의 구조성이나 유형에 따른 놀이행동 등 또래와의 놀이는 유아의 발달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이다. 특히, 유아가 또래와의 놀이상황에서 보이는 긍정적인 놀이상호작용이나, 놀이방해, 놀이단절과 같은 부정적인 놀이행동을 포괄하는 또래놀이행동은 최근 들어 놀이 관련 연구들 중 가장 주목을 받고 있다(이지희, 김혜연, 2012; 장윤희, 문혁준, 2011; Fantuzzo, Coolahan, Mendez, & Sutton-Smith, 1988). 이러한 또래놀이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요인으로 부정적 정서성을 들 수 있는데, 남녀 유아를 대상으로 이들의 부정적 정서성과 또래놀이행동의 관계에 대해 살펴본 연구(권연희, 2012)에 의하면, 부정적 정서성이 높을수록 남자는 놀이단절행동을 많이 보이고, 여자는 놀이상호작용을 적게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볼 때 유아의 또래놀이행동에 대한 부정적 정서성의 영향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유아는 또래와의 놀이상황에서 놀이상대방인 또래와의 놀이를 유지하기 위해 놀이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며 적극적으로 상호작용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놀이를 방해하거나 이를 중단시키는 행동을 하면서 놀이 참여를 거부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는 유아는 놀이를 방해하게 되고, 위축된 행동을 보이는 유아는 놀이를 단절시키거나 중단시킨다(Cohen & Mendez, 2009). 이러한 결과는 유아의 행동문제가 또래놀이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보여준다.

기존의 선행연구들에서는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과 행동문제, 그리고 부정적 정서성과 또래놀이행동 간의 관련성을 확인시켜주었다. 그런데 최근까지는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 행동문제, 또래놀이행동, 이들 세 변인 간에는 어떠한 관련성이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별다른 관심이 주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아를 대상으로 이들의 부정적 정서성과 또래놀이행동의 관계에 대해 살펴본 권연희(2012)의 연구에서는 개인 내적 요인인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과 또래놀이행동의 관계를 확인함에 있어서 맥락의 상호작용적 측면을 고려하여 교사-유아 간 갈등적 관계의 조절효과를 살펴보았다. 권연희(2012)의 연구는 유아의 개인 내적 요인과 맥락적 상호작용 요인이 또래놀이행동에 미치는 관련성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맥락의 상호작용적 측면보다 우선적으로 유아의 개인적 행동 특성이 또래놀이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이 공격성과 같은 행동문제에 영향을 미치고(Rothbart et al., 1994), 유아가 일상에서 보이는 행동문제가 또래놀이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Cohen & Mendez, 2009) 선행연구를 고려해본다면,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이 높을 경우 일상적인 행동문제도 자주 발생하게 되고, 이러한 영향이 또래와의 놀이행동에도 반영되어 나타날 것으로 예측된다. 즉 유아의 기질적 요인인 부정적 정서성에 따라 또래와의 놀이행동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데, 이 때 유아가 일상적으로 보이는 행동상의 특성이 부정적 정서성과 놀이행동 간 관계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나, 이러한 관계에 대해 직접적으로 확인한 연구가 많지 않아 부정적 정서성과 또래놀이행동의 관계에서 유아의 전반적인 행동문제가 매개적 역할을 담당하는지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상의 내용에 근거하여 이 연구에서는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이나 행동문제와 같은 유아의 개인적 요인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하여 이들 요인과 또래놀이행동의 하위영역, 즉 놀이상호작용, 놀이방해, 놀이단절의 관련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앞서 살펴본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 행동문제, 또래놀이행동에 관한 선행연구의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과 또래놀

이 행동 간의 관계에서 행동문제가 매개적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예측되므로 이들 간 관계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Baron과 Kenny(1986)의 매개변인 탐색을 위한 전략 즉, 첫째,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야 하며, 둘째,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야 하며, 셋째, 독립변인 통제 시 매개변인이 종속변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야 하며, 종속변인에 대한 독립변인의 효과가 매개변인 통제 시 사라지거나 감소해야 한다는 조건에 근거하여 먼저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이들의 부정적 정서성이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다음으로 부정적 정서성이 또래놀이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살펴본다. 기존의 연구들(권연희, 2012; 최인숙, 2015; Cohen & Mendez, 2009; Rothbart et al., 1994)에 의하면,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이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이나 부정적 정서성이 또래놀이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그런데 부정적 정서성과 같은 유아의 정서적 측면이 일상에서의 행동적 측면에 반영되어 행동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이러한 일상적인 행동문제는 유아의 또래관계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과 행동문제가 또래놀이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봄으로써 유아의 또래놀이행동에 대한 부정적 정서성의 영향력이 행동문제에 의해 매개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선정하였다.

**연구문제 1.**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은 행동문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은 또래놀이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3.** 유아의 행동문제는 부정적 정서성과 또래놀이행동 간 관계를 매개하는가?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 행동문제, 또래놀이행동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유아의 행동문제가 부정적 정서성과 또래놀이행동 간 관계를 매개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3~5세 유아 287명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가정의 소득수준을 통제하기 위해 중류층 가정의 유아가 채워진 중인 서울지역 직장어린이집 3곳의 유아 287명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부모의 자녀만을 연구대상에 포함시켰다. 연구대상 유아의 성별은 남아 152명(53.0%), 여아 135명(47.0%)이었고, 연령은 3세가 112명(39.0%), 4세가 105명(36.6%), 5세가 70명(24.4%)이었다.

### 2. 연구도구

#### 1) 부정적 정서성

본 연구에서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척도는 Rothbart, Ahadi 그리고

Hershey(1994)가 개발한 아동행동질문지(Child Behavior Questionnaires: CBQ)인데, 그 중 부정적 정서성에 해당하는 18문항을 사용하였다. 부정적 정서성의 하위영역은 슬픔(예, 슬픈 이야기를 들으면 잘 운다), 두려움(예, 커다란 개나 동물을 보면 무서워한다), 분노(예, 원하는 것을 가지지 못하면 심하게 떼를 쓴다)로 구분되는데, 각 하위영역은 6문항씩 총 18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부정적 정서성 척도는 7점 리커트 척도로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7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유아의 담임교사가 부정적 정서성 질문지를 작성하여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을 측정하였고, 부정적 정서성 문항의 Cronbach's  $\alpha$  값은 .84로 나타났다.

## 2) 행동문제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행동문제를 측정하기 위해 아동행동 체크리스트(Child Behavior Checklist: Achenbach, 1991)를 사용하였는데, 이 척도를 한국아동을 대상으로 표준화한 연구결과(한미현, 유안진, 1995)에 근거하여 한국 아동에게 부적합한 문항들을 제외하고 사용하였다. 또한 대상연령이 미취학 유아라는 점과 어린이집 담임교사가 질문지를 작성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4개 하위영역으로 구성된 총 24문항을 본 연구에서 사용하였다. 행동문제 척도의 하위영역은 불안(예, 신경이 예민하고 긴장을 한다), 위축(예, 자기는 보잘 것 없는 존재라고 느낀다), 과잉(예, 차분히 앉아 있지 못하고 부산하다), 공격행동(예, 물건을 부순다)으로 구분된다. 각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로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행동문제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유아의 담임교사가 행동문제 질문지를 작성하여 유아의 행동문제를 측정하였다. 행동문제 검사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값을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행동문제 문항의 Cronbach's  $\alpha$  값은 .91로 나타났다.

## 3) 또래놀이행동

본 연구에서 유아의 또래놀이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또래놀이행동척도(Penn Interactive Peer Play Scale: PIPPS)를 사용하였는데, 이 척도는 Coolahan 등(2000)이 개발하고 이를 한국에서 최혜영과 신혜영(2011)이 타당화한 척도이다. 또래놀이행동은 유아가 또래와의 놀이에서 보이는 행동 특성으로 또래와 상호작용을 시도하거나 이에 반응할 때 보이는 사회적, 상호작용적 놀이행동을 뜻한다. 유아의 또래놀이행동 척도는 총 30문항으로, 놀이상호작용 9문항(예, 놀이에서 순조롭고 융통성 있는 행동을 보인다), 놀이방해 13문항(예, 친구의 놀이를 방해한다), 놀이단절 8문항(예, 놀이를 시작할 때 도움을 필요로 한다)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까지의 4점 리커트형 척도로, 놀이상호작용의 경우 점수가 높을수록 또래 간 놀이상호작용이 활발함을 의미하고, 놀이방해와 놀이단절의 경우 점수가 높을수록 놀이방해와 놀이단절이 더 자주 발생함을 의미한다. 유아의 담임교사에 의한 또래놀이행동 질문지 작성으로 유아의 또래놀이행동을 측정하였고, 각 하위영역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값이 .91, .89, .90으로 나타났다.

### 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본조사 이전에 예비조사를 실시하고, 질문지 문항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단어나 문장이 동일한 줄에 배치되도록 보완하여 최종 질문지를 완성하였다.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연구자가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연구대상 유아의 담임교사에게 질문지를 배부하고 일주일 이후 재방문하여 질문지를 회수하였다. 350부의 질문지를 배부하였으나, 응답이 일부 누락되거나 회수되지 않은 질문지를 제외하고 총 287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부정적 정서성, 행동문제, 또래놀이행동 척도는 아동학 박사학위 소지자 3인에 의해 내용타당도가 검증되었다.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ver. 23.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통계방법으로는 빈도, 백분율, 이원변량분석,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 단순회귀분석,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이 사용되었다.

## Ⅲ. 결과 및 해석

### 1. 분석변인의 일반적 경향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 행동문제, 또래놀이행동의 일반적 경향을 살펴본 결과, <표 1>에서와 같이 부정적 정서성의 평균은 65.78점( $SD = 14.40$ ), 행동문제의 평균은 32.65점( $SD = 8.44$ ), 또래놀이행동 중 놀이상호작용의 평균은 23.84점( $SD = 5.79$ ), 놀이방해의 평균은 20.41점( $SD = 6.57$ ), 놀이단절의 평균은 10.37점( $SD = 3.57$ )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은 보통 수준이었고, 행동문제는 보통 이하 수준, 놀이상호작용은 보통 이상 수준, 놀이방해와 놀이단절은 보통 이하 수준이었다.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 행동문제, 또래놀이행동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2>에서와 같이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은 행동문제, 놀이방해, 놀이단절과 유의한 정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r = .49, .44, .31, p < .001$ ), 놀이상호작용과는 부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r = -.32, p < .001$ ). 또한 유아의 행동문제는 놀이상호작용과는 부적 관계를

<표 1> 분석변인의 기술통계량 (N = 287)

구분	최소값	최대값	범위	문항평균	M	SD
부정적 정서성	25	105	18~126	3.65	65.78	14.40
행동문제	24	64	24~120	1.36	32.65	8.44
또래놀이 행동						
놀이상호작용	9	36	9~36	2.65	23.84	5.79
놀이방해	13	43	13~52	1.57	20.41	6.57
놀이단절	8	28	8~64	1.30	10.37	3.57

<표 2> 분석변인의 상관관계

( $N = 287$ )

구분	1. 부정적 정서성	2. 행동문제	또래놀이행동		
			3. 놀이상호작용	4. 놀이방해	5. 놀이단절
1	1.00				
2	.49***	1.00			
3	-.32***	-.37***	1.00		
4	.44***	.76***	-.30***	1.00	
5	.31***	.61***	-.41***	.33***	1.00

\*\*\* $p < .001$ .

보였고( $r = -.37, p < .001$ ), 놀이방해 및 놀이단절과는 유의한 정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r = .76, .61, p < .001$ ).

성별 및 연령에 따라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 행동문제, 또래놀이행동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 보기 위해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표 3>, <표 4> 참조), 행동문제( $F = 21.32, p < .001$ )와 놀이방해( $F = 17.66, p < .001$ )에서만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연령에 따른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표 3> 분석변인의 성별 및 연령별 점수

구분	부정적 정서성 $M(SD)$	행동문제 $M(SD)$	또래놀이행동		
			놀이상호작용 $M(SD)$	놀이방해 $M(SD)$	놀이단절 $M(SD)$
남아 연령					
3세	67.12(13.66)	35.15( 8.13)	23.71(5.79)	23.15(7.11)	10.31(3.22)
4세	61.59(15.93)	33.07(10.19)	23.85(6.78)	20.87(7.61)	10.04(3.19)
5세	66.33(13.46)	36.54( 9.51)	21.90(4.19)	21.38(7.16)	11.79(5.26)
전체	64.95(14.58)	34.77( 9.30)	23.30(5.84)	21.89(7.33)	10.59(3.88)
여아 연령					
3세	67.72(11.80)	30.19( 6.64)	25.32(5.06)	19.26(4.85)	10.02(2.89)
4세	65.47(16.58)	29.86( 6.88)	24.04(6.48)	19.04(5.43)	10.20(3.48)
5세	67.06(13.94)	31.06( 6.31)	23.61(5.30)	17.39(4.98)	10.13(3.26)
전체	66.72(14.18)	30.27( 6.63)	24.44(5.70)	18.75(5.12)	10.11(3.19)
전체					
3세	67.40(12.76)	32.80( 7.83)	24.47(5.49)	21.31(6.43)	10.17(3.06)
4세	63.48(16.29)	31.51( 8.85)	23.94(6.61)	19.98(6.68)	10.11(3.32)
5세	66.66(13.58)	34.11( 8.64)	22.66(4.76)	19.61(6.56)	11.06(4.54)
전체	65.78(14.40)	32.65( 8.44)	23.84(5.79)	20.41(6.57)	10.37(3.57)

<표 4> 분석변인의 성별 및 연령별 차이

구분	변동원	자승합	자유도	평균자승	F
부정적 정서성	성별	205.69	1	205.69	1.00
	연령	887.90	2	443.95	2.15
	성별×연령	173.22	2	86.61	.42
행동문제	성별	1413.04	1	1413.04	21.32***
	연령	231.92	2	115.96	1.75
	성별×연령	65.721	2	32.86	.50
또래놀이행동					
놀이상호작용	성별	93.54	1	93.54	2.82
	연령	133.08	2	66.54	2.01
	성별×연령	35.607	2	17.80	.54
놀이방해	성별	716.17	1	716.17	17.66***
	연령	162.37	2	81.18	2.00
	성별×연령	73.24	2	36.62	.90
놀이단절	성별	24.38	1	24.38	1.93
	연령	35.50	2	17.75	1.41
	성별×연령	36.01	2	18.00	1.43

\*\*\* $p < .001$ .

## 2. 유아의 행동문제에 대한 부정적 정서성의 영향

유아의 행동문제에 대한 부정적 정서성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을 독립변인으로, 유아의 행동문제를 종속변인으로 하는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 5>에서와 같이 남아와 여아의 부정적 정서성은 행동문제( $\beta = .50, .59, p < .001$ )에 유의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행동문제를 25.0%, 35.2%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아와 여아의 부정적 정서성 수준이 높을수록 행동문제 수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Baron과 Kenny (1986)의 매개효과 검증을 위한 첫 번째 조건에 해당하는,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한다.

<표 5> 유아의 행동문제에 대한 부정적 정서성의 영향

구분	행동문제				
	B	$\beta$	F	R <sup>2</sup>	
남아	상수	14.05	.50***	50.07***	.25
	부정적 정서성	.32			
여아	상수	13.62	.59***	72.34***	.35
	부정적 정서성	.28			

\*\*\* $p < .001$ .



### 3. 유아의 또래놀이행동에 대한 부정적 정서성의 영향

유아의 또래놀이행동에 대한 부정적 정서성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을 독립변인으로, 유아의 또래놀이행동 하위영역 중 놀이상호작용을 종속변인으로 하는 단순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 6>에서와 같이 남아와 여아의 부정적 정서성은 놀이상호작용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며, 놀이상호작용에 대한 설명력은 남아 10.5%, 여아 10.3%로 나타났다( $\beta = -.33, -.32, p < .001$ ). 즉, 남아와 여아 모두 부정적 정서성 수준이 낮을수록 놀이상호작용이 더 활발하게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Baron과 Kenny(1986)의 매개효과 검증을 위한 두 번째 조건에 해당하는,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한다.

다음으로 유아의 또래놀이행동 하위영역 중 놀이방해에 대한 부정적 정서성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을 독립변인으로, 유아의 놀이방해를 종속변인으로 하는 단순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 6>에서와 같이 남아와 여아의 부정적 정서성은 놀이방해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며, 놀이방해에 대한 설명력은 남아 20.8%, 여아 25.9%로 나타났다( $\beta = .46, .51, p < .001$ ). 즉, 남아와 여아 모두 부정적 정서성 수준이 높을수록 놀이방해 수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Baron과 Kenny(1986)의 매개효과 검증을 위한 두 번째 조건에 해당하는,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한다.

마지막으로 유아의 또래놀이행동 하위영역 중 놀이단절에 대한 부정적 정서성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을 독립변인으로, 유아의 놀이단절을 종속변인으로 하는 단순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 6>에서와 같이 남아와 여아의 부정적 정서성은 놀이단절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며( $\beta = .35, .28, p < .001$ ), 놀이방해에 대한 설명력은 남아 12.2%, 여아

<표 6> 유아의 또래놀이행동에 대한 부정적 정서성의 영향 (N = 287)

구분	또래놀이행동						
	놀이상호작용		놀이방해		놀이단절		
	B	$\beta$	B	$\beta$	B	$\beta$	
남아	상수	31.74		7.01		4.57	
	부정적 정서성	-.13	-.33***	.23	.46***	.09	.35***
	F	17.68***		39.32***		20.75***	
	R <sup>2</sup>	.11		.21		.12	
여아	상수	33.03		6.47		5.97	
	부정적 정서성	-.13	-.32***	.18	.51***	.06	.28***
	F	15.23***		46.59***		11.02***	
	R <sup>2</sup>	.10		.26		.08	

\*\*\* $p < .001$ .

7.7%로 나타났다. 즉, 남아와 여아 모두 부정적 정서성 수준이 높을수록 놀이단절 수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Baron과 Kenny(1986)의 매개효과 검증을 위한 두 번째 조건에 해당하는,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한다.

#### 4. 유아의 또래놀이행동에 대한 부정적 정서성과 행동문제의 영향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과 행동문제가 또래놀이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과 행동문제를 독립변인으로, 유아의 또래놀이행동을 종속변인으로 하는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기에 앞서 독립변인들 간의 다중공선성의 가능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공차한계(Tolerance)와 분산팽창요인(VIF) 지수를 살펴본 결과, 또래놀이행동에 대한 부정적 정서성과 행동문제의 공차한계는 0.763, VIF 지수는 1.311의 분포를 보여 독립변인 간 다중공선성의 위험은 배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먼저, 유아의 또래놀이행동 하위영역 중 놀이상호작용에 대한 부정적 정서성과 행동문제의 영향을 성별에 따라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7> 참조). 남아의 경우 1단계 분석에서 놀이상호작용에 대한 부정적 정서성의 영향은 행동문제의 영향력을 통제한 2단계 분석에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beta = -.33 \rightarrow \beta = -.19$ ), 부정적 정서성을 통제했을 때 행동문제의 영향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beta = -.27, p < .01$ ). 놀이상호작용에 대한 설명력은 부정적 정서성 변인만이 투입된 경우 10.5%에서 행동문제 변인이 추가 투입된 경우 16.0%로 향상되었다. 이는 Baron과 Kenny(1986)가 제시한 부분매개 관계가 이루어지기 위한 세 번째 조건에 해당하는, 독립변인 통제 시 매개변인이 종속변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야 하며, 종속변인에 대한 독립변인의 효과가 매개변인 통제 시 감소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하는 결과로써, 남아의 행동문제는 부정적 정서성과 놀이상호작용 간의 관계를 부분매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여아의 경우 1단계 분석에서 놀이상호작용에 대한 부정적 정서성의 영향은 행동문제의 영향력을 통제한 2단계 분석에서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beta = -.32 \rightarrow \beta = -.16$ ), 부정적 정서성을 통제했을 때 행동문제의 영향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beta = -.27, p < .01$ ). 놀이상호작용에 대한 설명력은 부정적 정서성 변인만이 투입된 경우 10.3%에서 행동문제 변인이 추가 투입된 경우 15.0%로 향상되었다. 이는 Baron과 Kenny(1986)가 제시한 완전매개 관계가 이루어지기 위한 세 번째 조건에 해당하는, 독립변인 통제 시 매개변인이 종속변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야 하며, 종속변인에 대한 독립변인의 효과가 매개변인 통제 시 사라져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하는 결과로써, 여아의 행동문제는 부정적 정서성과 놀이상호작용 간의 관계를 완전매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유아의 또래놀이행동 하위영역 중 놀이방해에 대한 부정적 정서성과 행동문제의 영향을 성별에 따라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7> 참조). 남아의 경우 1단계 분석에서 놀이방해에 대한 부정적 정서성의 영향은 행동문제의 영향력을 통제한 2단계 분석에서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beta = .46 \rightarrow \beta = .06$ ), 부정적 정서성을 통제했을 때 행동문제의 영향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beta = .78, p < .001$ ). 놀이방해에 대한 설명력은 부정적 정서성 변인만이 투입된 경우 20.8%에서 행동문제 변인이 추가 투입된 경우 66.9%로 향상되었다. 이는 Baron과 Kenny

〈표 7〉 유아의 또래놀이행동에 대한 부정적 정서성과 행동문제의 영향 (N = 287)

구분	놀이상호작용							
	1단계				2단계			
	B	$\beta$	F	R <sup>2</sup>	B	$\beta$	F	R <sup>2</sup>
남아								
부정적 정서성	-.13	-.33***	17.68***	.11	-.08	-.19*	14.22***	.16
행동문제					-.17	-.27**		
여아								
부정적 정서성	-.13	-.32***	15.23***	.10	-.06	-.16	11.69***	.15
행동문제					-.23	-.27**		
구분	놀이방해							
	1단계				2단계			
	B	$\beta$	F	R <sup>2</sup>	B	$\beta$	F	R <sup>2</sup>
남아								
부정적 정서성	.23	.46***	39.32***	.21	.03	.06	150.57***	.67
행동문제					.62	.78***		
여아								
부정적 정서성	.18	.51***	46.59***	.26	.10	.26**	38.99***	.37
행동문제					.32	.42***		
구분	놀이단절							
	1단계				2단계			
	B	$\beta$	F	R <sup>2</sup>	B	$\beta$	F	R <sup>2</sup>
남아								
부정적 정서성	.09	.35***	20.75***	.12	.01	.03	55.73***	.43
행동문제					.27	.64***		
여아								
부정적 정서성	.06	.28***	11.02***	.08	-.02	-.08	28.84***	.30
행동문제					.29	.59***		

\*  $p < .05$ , \*\*  $p < .01$ , \*\*\*  $p < .001$ .

(1986)가 제시한 완전매개 관계가 이루어지기 위한 세 번째 조건에 해당하는, 독립변인 통제 시 매개변인이 종속변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야 하며, 종속변인에 대한 독립변인의 효과가 매개변인 통제 시 사라져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하는 결과로써, 남아의 행동문제는 부정적 정서성과 놀이방해 간의 관계를 완전매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여아의 경우 1단계 분석에서 놀이방해에 대한 부정적 정서성의 영향은 행동문제의 영향력을 통제한 2단계 분석에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beta = .51 \rightarrow \beta = .26$ ), 부정적 정서성을 통제했을 때 행동문제의 영향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beta = .42, p < .001$ ). 놀이방해에 대한 설명력은 부정적 정서성 변인만이 투입된 경우 225.9%에

서 행동문제 변인이 추가 투입된 경우 37.1%로 향상되었다. 이는 Baron과 Kenny(1986)가 제시한 부분매개 관계가 이루어지기 위한 세 번째 조건에 해당하는, 독립변인 통제 시 매개변인이 종속변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야 하며, 종속변인에 대한 독립변인의 효과가 매개변인 통제 시 감소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하는 결과로써, 여아의 행동문제는 부정적 정서성과 놀이방해 간의 관계를 부분매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유아의 또래놀이행동 하위영역 중 놀이단절에 대한 부정적 정서성과 행동문제의 영향을 성별에 따라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7> 참조). 남아의 경우 1단계 분석에서 놀이단절에 대한 부정적 정서성의 영향은 행동문제의 영향력을 통제한 2단계 분석에서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beta = .35 \rightarrow \beta = .03$ ), 부정적 정서성을 통제했을 때 행동문제의 영향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beta = .64, p < .001$ ). 놀이단절에 대한 설명력은 부정적 정서성 변인만이 투입된 경우 12.2%에서 행동문제 변인이 추가 투입된 경우 42.8%로 향상되었다. 이는 Baron과 Kenny(1986)가 제시한 완전매개 관계가 이루어지기 위한 세 번째 조건에 해당하는, 독립변인 통제 시 매개변인이 종속변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야 하며, 종속변인에 대한 독립변인의 효과가 매개변인 통제 시 사라져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하는 결과로써, 남아의 행동문제는 부정적 정서성과 놀이단절 간의 관계를 완전매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여아의 경우 1단계 분석에서 놀이단절에 대한 부정적 정서성의 영향은 행동문제의 영향력을 통제한 2단계 분석에서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beta = .28 \rightarrow \beta = -.08$ ), 부정적 정서성을 통제했을 때 행동문제의 영향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beta = .59, p < .001$ ). 놀이단절에 대한 설명력은 부정적 정서성 변인만이 투입된 경우 7.7%에서 행동문제 변인이 추가 투입된 경우 30.4%로 향상되었다. 이는 Baron과 Kenny(1986)가 제시한 완전매개 관계가 이루어지기 위한 세 번째 조건에 해당하는, 독립변인 통제 시 매개변인이 종속변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야 하며, 종속변인에 대한 독립변인의 효과가 매개변인 통제 시 사라져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하는 결과로써, 여아의 행동문제는 부정적 정서성과 놀이단절 간의 관계를 완전매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IV. 논의 및 결론

이 연구에서는 먼저 3~5세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이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다음으로 부정적 정서성이 또래놀이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와 더불어 유아의 또래놀이행동에 대한 부정적 정서성의 영향력이 행동문제에 의해 매개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지역 직장어린이집 3곳의 3~5세 유아 287명의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유아의 행동문제에 대한 부정적 정서성의 영향을 살펴본 결과, 남아와 여아 모두 부정적 정서성이 행동문제에 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부정적 정서성 수준이 높을수록 행동문제 수준도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행동문제에 대한 부정적 정서성의 설명력은 남아 25.0%, 여아 35.2%로 나타나서 남아와 여아 모두 슬픔, 두려움, 분노와 같은 부정적 정서성이 강할수록 일상생활에서

의 행동문제 역시 더 높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기 정서적 요인이 이후 사회적 적응을 예측한다는 점을 확인시켜주었으며(Denham et al., 2003),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이 행동문제나 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결과(김선희, 2016; 박새롬 등, 2015; 성미영, 2006; 성미영, 권기남, 2010; Eisenberg et al., 2001; Eisenberg, Fabes, Guthrie, & Reiser, 2000)를 지지한다.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은 공격성이나 죄의식 등과 정적인 관련을 보이고, 부정적 정서를 자주 경험할수록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으므로(Rothbart et al., 1994), 부정적 정서성 수준이 높은 유아는 어린이집 일과에서도 불안해하거나 과잉행동 등의 행동문제를 보이는 경향성이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해볼 수 있다.

둘째,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은 또래놀이행동 중 놀이상호작용에 부적 영향을 미쳐서 남아와 여아 모두 부정적 정서성 수준이 높을수록 놀이상호작용 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놀이상호작용에 대한 부정적 정서성의 설명력은 남아가 10.5%, 여아가 10.3%였다. 또한 남아와 여아의 부정적 정서성은 놀이방해와 놀이단절에 각각 정적 영향을 미쳐 부정적 정서성 수준이 높을수록 놀이방해나 놀이단절행동이 더 빈번하게 나타났다. 놀이방해와 놀이단절에 대한 부정적 정서성의 설명력은 남아의 경우 각각 20.8%, 12.2%로, 여아의 경우 각각 25.9%, 7.7%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의 내적 요인인 부정적 정서성이 또래놀이행동이나 또래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권연희, 2012; 권연희, 이종희, 2005; 최인숙, 이강이, 2010)이라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지지한다. 기질의 하위요인인 정서성 특히, 부정적 정서성은 개인의 적응력에 있어 중요한 정서 관련 변인에 해당하고, 또래놀이행동에서 뿐만 아니라 이후의 사회적응에 있어서도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부정적 정서성 수준이 높은 유아의 경우에는 부정적 정서성을 감소시키거나 완화시키는 중재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부정적 정서성 수준을 완화시켜줄 필요성이 제기된다. 특히, 놀이방해에 대한 부정적 정서성의 설명력이 남아와 여아 모두 20% 이상이라는 점을 고려해보면, 부정적 정서성 완화 프로그램에 유아가 참여할 경우 또래와의 놀이에서 공격적인 행동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부정적 정서성과 또래놀이행동 간의 관계에서 행동문제가 담당하는 매개변인의 역할은 남아와 여아의 경우 일부 다르게 나타났다. 남아의 경우 놀이상호작용에 대한 부정적 정서성의 영향은 행동문제에 의해 부분적으로 매개된 것으로 나타났고, 놀이방해와 놀이단절에 대한 부정적 정서성의 영향은 행동문제에 의해 완전히 매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여아의 경우에는 놀이방해에 대한 부정적 정서성의 영향은 행동문제에 의해 부분적으로 매개된 것으로 나타났고, 놀이상호작용과 놀이단절에 대한 부정적 정서성의 영향은 행동문제에 의해 완전히 매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아의 경우 놀이상호작용에 대한 부정적 정서성의 영향력이 행동문제의 영향으로 인해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부정적 정서성의 영향력이 감소하여 여전히 놀이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하며, 여아의 경우에는 놀이방해에 대한 부정적 정서성의 영향력이 행동문제의 영향으로 인해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부정적 정서성의 영향력이 감소하여 여전히 놀이방해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남아의 경우 놀이방해와 놀이단절에 대한 부정적 정서성의 영향력이 행동문제의 영향으로 인해 완전히 사라져서 놀이방해와 놀이단절에 더 이상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음을 의미하며, 여아의 경우 놀이상호작용과 놀이단절에 대한 부정적 정서성의 영향력이 행동문제의 영향으로 인해 완전히 사라져서 놀이상호작용과 놀이단절에 더 이상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음을 의미한다.

이처럼 남아의 경우에는 놀이방해와 놀이단절에서, 여아의 경우에는 놀이상호작용과 놀이단절에서 행동문제가 완전매개 변수로서의 역할을 함에 따라, 행동문제 변인의 영향력을 통제할 경우, 이를 통제하기 이전에 존재하던 부정적 정서성의 영향이 사라진 본 연구의 결과는 기질의 하위요인인 부정적 정서성이 유아의 또래놀이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기보다는 다른 요인과의 상호작용 맥락 내에서 동일한 환경에서도 어떻게 다르게 반응하느냐에 영향을 주는 차원으로 이해해야 한다(Gordon, 1981).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이 공격성 등의 행동문제와 정적인 관련을 보이고(Rothbart et al., 1994),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는 유아는 놀이를 방해하게 되고, 위축된 행동을 보이는 유아는 놀이를 단절시키거나 중단시킨다(Cohen & Mendez, 2009)는 선행연구의 결과는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과 또래놀이행동 간 관계에서 행동문제가 매개적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와 일맥상통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부정적 정서성이 또래와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의미 있는 개인 내적 요인임을 확인시켜줌과 동시에, 행동문제와 같은 유아의 행동적 요인이 이들 간 관계에서 매개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끝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을 살펴보고 이를 근거로 후속연구를 위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할 수 있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행동문제를 내면화와 외현화 행동문제로 구분하지 않고 전체 행동문제 점수를 사용하였는데, 불안이나 위축과 같은 내면화 행동문제와, 공격성이나 과잉행동 같은 외현화 행동문제에 대한 부정적 정서성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후속연구에서는 행동문제를 구분하여 영향력의 차이를 비교해 볼 필요성도 제기된다. 다음으로, 또래놀이행동은 유아의 정서 관련 요인과 밀접한 관련성을 보이는데, 예를 들어 부정적 정서성, 정서불안정, 정서조절 등과 같은 유아의 정서 관련 요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봄으로써 이러한 요인 중 특히 더 영향력이 있는 요인을 확인해보거나, 유아의 개인 내적 요인 이외에 부모나 교사 요인과 같은 외적 요인의 영향력을 후속연구에서 살펴보는 것도 필요하다. 최근에는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과 더불어 긍정적 정서성이 복합적으로 이후 우울 증상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었으므로(Van Beveren, Mezulis, Wante, & Braet, 2016) 긍정적 정서성을 포함한 연구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이 행동문제를 통해 또래놀이행동에 직접적으로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확인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유아가 보이는 전반적인 행동상의 문제가 또래와의 놀이행동에 대해 매개적 역할을 담당함을 밝혔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 참고문헌

- 권연희 (2012). 남녀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과 놀이 시 또래상호작용의 관계에 대한 교사-유아간 갈등적 관계의 조절효과. **유아교육연구**, 32(2), 29-48.
- 권연희, 이종희 (2005).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 아동의 정서성 및 사회적 행동 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6(6), 201-216.
- 김선희 (2016).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과 어머니의 우울이 유아의 내재화 행동문제에 미치는 중단적 영향: 다변량잠재성장모형 분석. **유아교육학논집**, 20(5), 421-446.
- 김수정, 곽금주 (2010). 초등 일학년 학교적응의 예언 변인들 간 관련성 탐색.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3(2), 19-37.
- 박새롬, 노보람, 박혜준, 이순형 (2015).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변화 궤적과 영유아의 기질 및 내재화 행동문제의 구조관계: 어머니의 취업유무에 따른 집단분석. **육아정책연구**, 9(1), 119-148.
- 성미영 (2006). 시설보호 여부에 따른 아동의 정서성 발달과 내면화 및 외현화 행동문제. **한국생활과학회지**, 15(1), 17-29.
- 성미영, 권기남 (2010). 유아의 긍정적, 부정적 정서성이 내면화 및 외현화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 대인관계지능 및 개인이해지능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48(2), 39-49.
- 이지희, 김혜연 (2012). 유아기 긍정적, 부정적 또래상호작용에 관련된 변인 연구. **한국보육지원학회지**, 8(6), 301-322.
- 장윤희, 문혁준 (2011). 유아의 리더십과 자기조절능력이 또래 놀이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9(2), 73-87.
- 최인숙 (2015). 영아기 부정적 정서성과 어머니의 사회적 양육행동이 3세 유아의 또래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잠재성장모형을 이용한 종단연구. **아동학회지**, 36(6), 147-164.
- 최인숙, 이강이 (2010). 사회정보처리 구성요소와 정서요인이 유아의 외현적 공격성과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31(6), 15-34.
- 최혜영, 신혜영 (2011).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한 또래 놀이행동 척도의 타당화. **아동학회지**, 32(2), 35-52.
- 한미현, 유안진 (1995). 아동행동평가척도(CBCL)의 타당화 연구. **아동학회지**, 16(2), 5-21.
- 황윤세 (2007). 유아의 기질, 자기조절력과 상호작용적 또래놀이와의 관계. **열린유아교육연구**, 12(1), 145-166.
- Achenbach, T. M. (1991). *Manual for Child Behavior Checklist/4-18 and 1991 Profile*. Burlington, VT: University of Vermont, Dept. of Psychiatry.
- Arsenio, W. F., Cooperman, S., & Lover, A. (2000). Affective predictors of preschoolers' aggression and peer acceptance: Direct and indirect effects. *Developmental Psychology*, 36(4), 438-448.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

- 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1182.
- Cohen, J. S., & Mendez, J. L. (2009). Emotion regulation, language ability, and the stability of pre-school children's peer play behavior. *Early Education and Development*, 20(6), 1016-1037.
- Coolahan, K., Fantuzzo, J., Mendez, J., & McDermott, P. (2000). Preschool peer interactions and readiness to learn: Relationships between classroom peer play and learning behaviors and conduct.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92(3), 458-465.
- Denham, S. A., Blair, K. A., Demulder, E., Levitas, J., Sawyer, K., Auerbach-Major, S., et al. (2003). Preschool emotional competence: Pathway to social competence. *Child Development*, 74(1), 238-256.
- Eisenberg, N., Cumberland, A., Spinard, T. L., Fabes, R. A., Shepard, S. A., Reiser, M., et al. (2001). The relations of regulation and emotionality to children's externalizing and internalizing problem behavior. *Child Development*, 72(4), 1112-1134.
- Eisenberg, N., Fabes, R. A., Guthrie, I. K., & Reiser, M. (2000). Dispositional emotionality and regulation: Their role in predicting quality of social function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8(1), 136-157.
- Eisenberg, N., Sadovsky, A., Spinrad, T. L., Fabes, R. A., Losoya, S. H., Valiente, C., et al. (2005). The relations of problem behavior status to children's negative emotionality, effortful control, and impulsivity: Concurrent relations and prediction of change. *Developmental Psychology*, 41(1), 193-211.
- Fabes, R. A., Eisenberg, N., Jones, S., Smith, M., Guthrie, I., Poulin, R., et al. (1999). Regulation, emotionality, and preschoolers' socially competent peer interactions. *Child Development*, 70(2), 432-442.
- Fantuzzo, J., Coolahan, K., Mendez, J., & Sutton-Smith, B. (1988). Contextually-relevant validation of peer play constructs with African American Head Start children: Penn Interactive Play Scale.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13(3), 105-120.
- Gordon, B. N. (1981). Child temperament and adult behavior: An exploration of 'goodness of fit'. *Child Psychiatry and Human Development*, 11(3), 167-178.
- Rothbart, M. K., Ahadi, S. A., & Hershey, K. L. (1994). Temperament and social behavior in childhood. *Merrill-Palmer Quarterly*, 40(1), 21-39.
- Rothbart, M. K., & Bates, J. E. (2006). Temperament. In N. Eisenberg (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Vol. 3): Social, emotional, and personality development* (6th ed., pp. 99-166). Hoboken, NJ: Wiley.
- Rubin, K. H., Bukowski, W., & Paker, J. (2001). Peer interactions, relationships, and groups. In W. Damon & R. M. Lerner (Eds.),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Vol. 3): Social, emotional, and personality development* (6th ed., pp. 571-643). NY: John Wiley & Sons.



- Rubin, K. H., Coplan, R. J., Fax, N. A., & Calkins, S. (1995). Emotionality, emotion regulation, and preschooler's social adaptation. *Development and Psychology, 7*(1), 49-62.
- Russel, A., Hart, C., Robinson, C. C., & Olson, S. F. (2003). Children's sociable and aggressive behavior with peers: A comparison of the US and Australia and contributions of temperament and parenting styles.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27*(1), 74-86.
- Spinrad, T. L., Eisenberg, N., Harris, E., Hanish, L., Fabes, R. A., Kupanoff, K., et al. (2004). The relation of children's everyday nonsocial peer play behavior to their emotionality, regulation, and social functioning. *Developmental Psychology, 40*(1), 67-80.
- Troxel, W. M., Trentacosta, C. J., Forbes, E. E., & Campbell, S. B. (2013). Negative emotionality moderates associations among attachment, toddler sleep, and later problem behavior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27*(1), 127-136.
- Van Beveren, M. L., Mezulis, A., Wante, L., & Braet, C. (2016). Joint contributions of negative emotionality, positive emotionality, and effortful control on depressive symptoms in youth. *Journal of Clinical Child Adolescence Psychology, 45*, 1-12.